

2021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2.01.06. (목) 14:00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자(총 14명 중 12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김형중(의장), 박상도, 민병걸
 - 나. 직원대표 : 조현미(부의장), 이해숙
 - 다. 조교대표 : 유황비
 - 라. 학생대표 : 류수경, 추시연
 - 마. 동 문 : 최형심, 이귀우
 - 바. 외 부 : 백성기, 김태현
4. 불참자 : 한승준, 김종현(교원)
5. 심의 안건
 - 가. 대학원 학칙 개정(안)
 - 나.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 다.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 라. 첨단학과 신설 신청(안)
6. 자문안건
 - 가. 서울여자대학교 헌장 개정 요청(안)
 - 나. 2021학년도 추가경정자금 예산(안)
 - 다. 2022학년도 자금 예산(안)

1. 심의 안건 - 「대학원 학칙」 개정(안)

기획처장이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대학원 학칙」 개정(안) 대하여 설명하다.

- 학부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본교 대학원 진학을 전제로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가.
- 학부 조기졸업 요건은 평점평균 4.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나,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중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경우, 학·석사연계과정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신청한 학생 중 7학기 말에 평점평균 3.75 이상을 취득한 경우

에 학·석사연계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타 대학에서도 이미 많이 시행 중인 제도이며, 학교마다 과정 신청 및 졸업에 대한 평점평균 등 자격 기준은 차이가 있다.

○ 대학원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가.

-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학생에게 혜택을 주어 본교 대학원 진학 전제로 학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연한 단축을 통하여 사회에 조기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계획되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혁신의 일환으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빠른 사회 진출을 추진하고자 AI 등 첨단학문 분야에 있어 타 대학과의 학·석사연계과정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제2차 대학평의회에서 승인한 학·연·산 협동과정, 학과간 협동과정에 이어 학·석사연계과정을 대학원 활성화 방안으로 도입하고자 하며, 특히 연속적인 실험·실습 등을 수행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의 제출 시기가 고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서 조항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가.

- 학·연·산협동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학·석사연계과정 등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학칙에 명시한 시기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의 제출 시기는 원칙으로 정하여 단서는 두지 않을 계획이다.

○ 학·석사연계과정을 통하여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첫 학기 자퇴나 휴학을 할 수 없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자퇴나 휴학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 첫 학기에도 질병 휴학은 가능하다. 학생이 취업 등의 사유로 자퇴하는 경우에는 학부는 졸업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대학의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는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자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된다.

○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이 제도를 통하여 대학원에 순조롭게 진학하여 학업과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

○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한다.

2. 심의 안건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교무처장이 학·석사연계과정, 유연학기제 및 집중이수제, 학생설계전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학생설계전공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있는가.

- 「학생설계전공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이 승인되면, 규정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2학년도부터 교내 교원 및 학생에게 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학생설계전공은 복수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일정으로 보면 2022학년도 1학기 말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2022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설계전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를 위촉하고, 지도교수를 통해 교과과정을 수립해야 하며, 새로운 교과과정과 그에 따른 학위명에 대해 확정하기 위한 학생설계전공 운영위원회를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입하는 것은 2학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학생설계전공은 학사제도의 변경인데, 교원이나 학생에게 사전에 공지된 바가 없다. 교내 구성원과 제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학칙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적합하지 않은가.

- 학생설계전공은 지도교수와 학생이 교과과정을 설계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콘텐츠가 도출될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학칙을 먼저 마련하고, 이후 제도에 대하여 공지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하게 되었다.

○ 대학의 자율혁신계획(안)과 관련하여 단과대학 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학생설계전공의 도입으로 인하여 다른 단과대학이나 전공에 영향이 있는가. 대학평의위원회는 심의기구이므로, 타 대학 사례는 어떠하며, 우리 대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학생설계전공은 자율혁신계획과 관련하여 어떤 관련이 있는지와 같이 심의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단과대학 별로 논의 중인 내용과 학생설계제도가 상충되지 않을 것이다. 학생설계전공은 단과대학의 변화보다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분야를 스스로 설계하는 내용이며, 복수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제1전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학생설계전공을 먼저 도입한다고 해서 단과대학 별 논의 결과나 자율혁신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학생설계전공은 다수의 대학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학 교육이 공급형에서 학생 수요형으로 변화하며 도입된 제도이며, 이 제도는 교원이 상당한 시간을 별도로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원의 의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한 제도가 되어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우려가 있다. 제도 도입에 앞서 교원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교원의 의지를 확인한 후 기본 프레임을 설계하여 운영 계획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지한 후에 학칙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 이 제도는 이미 여러 대학에서 오래전부터 도입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행정적으로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학생이 설계한 교과과정, 지도교수, 학위명이 확정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2022학년도 1학기를 시행 시기로 정하여도 학생이 실제로 진입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우선 학칙에 학생설계전공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와 같이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또한, 올해 5월 교육부에 제출할 자율혁신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 중에는 학생 선택권을 반영한 학사제도 개편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향후 우리대학이 자율혁신계획(안)으로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계획하고 추진할 예정임을 명시하고자 제도 정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학칙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설계전공은 혁신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자기 주도가 가능한 부분에서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 타 대학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일부 제약이 있어 진입장벽이 높을 것이며, 이에 신청하는 학생도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신청 절차 등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시,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설계전공 확대 방안, 교내 구성원 홍보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타 대학 운영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내 구성원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타 대학이 겪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절차를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홍보에 있어서 슈리포터, 총학생회, 학보사, SNS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Q&A등 쉽게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인터뷰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학칙이 승인되어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와 더불어 제도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 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학생설계전공으로 졸업하는 경우, 학위명은 어떻게 되는가. 학생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한 경우, 해당 전공이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 학생설계전공의 전공명과 학위명은 수립된 교과과정에 따라 확정되며, 우리 대학에 없는 명칭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은 국내 대학에서 시행하는 학생설계전공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 자율혁신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학사제도 개선 등 구성원의 공감을 얻어야 하고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추후 자율혁신계획 수립에 따라 개정해야 할 규정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일괄적으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안에 대한 학칙 개정을 먼저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수립될 자율혁신계획(안)의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는 제도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논의하여 의결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정비하여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은가.
- 현재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 관련 학과들의 경우, 4년 10학기제를 통해 유연학기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바롬인성교육도 집중이수제의 형태로 운영 중이므로 관련 근거를 학칙에 마련하고자 유연학기제 및 집중이수제와 관련한 조항을 학칙에 마련하고자 한다. 단, 유연학기제나 집중이수제의 경우에는 전공별로 학기제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과대학 별 논의 등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학칙에서는 유연학기제와 집중이수제에 대한 기본 틀을 갖추어두고, 향후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자율혁신계획(안)이 수립되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추가로 개정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설계전공의 경우, 교과과정 수립, 지도교수 위촉 등 상황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교과과정 초안을 구성하는 등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공지하려면 학칙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수의 학생이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학생설계전공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착시키고자 2022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설계전공을 도입하고자 한다. 추후 자율혁신계획(안)이 수립됨에 따라 도출되는 학사제도 운영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절차에 있어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며, 교육부의 대학혁신 관련 제시 방향과도 부합하며, 학사제도 운영의 다양성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학칙에 제도 도입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단,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측되며, 교원의 추가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교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운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3. 심의 안건 - 「개방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상위법령 위임 조항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개방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개방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4. 심의 안건 - 첨단학과 신설 신청(안)

기획처장이 2023학년도 교육부 첨단학과 신설 신청과 관련하여 자연과학대학 산하 바이오헬스융합학과 신설 신청(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첨단학과 신설에 따른 입학정원 마련을 위해 자연과학대학 산하 화학·생명환경과학부의 입학정원을 감축한 것은 자연과학대학에 첨단학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정원 감축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자율전공학부의 경우에는 입학정원 감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학과 자체의 결정이 아닌 외부적인 이유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자율전공학부의 설립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 감축을 필요하다면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학정원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자율전공학부와의 논의가 뒤늦게 진행되었다고 확인하였는데, 추후에는 입학정원 조정 시 교내 구성원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첨단학과 신설 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추후 첨단학과 신설 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견 수렴의 절차를 마련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첨단학과 신설의 경우, 화학·생명환경과학부로부터 첨단학과 신설 제안을 제출받고 나서야 화학·생명환경과학부 외에 자율전공학부의 입학정원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자율전공학부와의 논의 시점이 다소 지연되었다. 추후 첨단학과 신설과 관련하여 자율전공학부의 입학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적

절한 시점에 총학생회, 자율전공학부 학생회와 소통하여 절차를 진행하겠다.

○ 자율전공학부 외에 다른 전공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려는 시도나 노력은 있었는가.

- 이번에는 자율전공학부와 첨단학과 신설을 제안한 화학·생명환경과학부의 입학정원 조정만 검토되었다. 현재까지 첨단학과를 신설할 때마다 첨단학과 신설 관련 학과와 자율전공학부의 입학정원을 활용하였다. 이에 자율전공학부는 지속적인 입학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학부 체제로 운영하기에 한계치에 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첨단학과 신설을 위하여 자율전공학부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첨단학과를 신설하게 되는 경우, 다른 전공에서의 입학정원 조정을 검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자율전공학부에서 첨단학과 신설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입학정원이 조정되었으며, 향후에는 다른 학과의 입학정원도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첨단학과 신설 시, 자율전공학부의 입학정원을 조정된 사유가 전에는 중도 탈락률에 따른 지속적인 결손인원 발생이었으며, 현재는 자율전공학부의 발전, 대학의 혁신이라고 확인하였다. 입학정원의 조정의 사유는 이렇게 변동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명확한 근거와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앞으로 자율혁신계획(안)의 수립에 있어 학생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입학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된 자율전공학부와 자율전공학부 학생회 운영에 대한 검토도 수반해야 할 것이다.

- 제시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 자율혁신계획(안)의 수립과 관련하여 적정 규모화에 따라 우리 대학도 입학정원 조정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교육부의 시안은 제시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차주에 공청회를 앞두고 있으며,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 앞서 학생설계전공 제도의 도입은 학생의 자율성 및 선택권을 위함인데,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자율전공학부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최근 'IT'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중대되고 있음에도 화학·생명환경과학부와 같은 학문 분야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다소 모순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첨단학과 신설은 적정 규모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 대학은 자율전공학부의 규모를 조정하더라도 첨단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화장품 산업이 지속적

으로 강세에 있으며, 바이오화장품공학 연계융합전공의 학생 수요가 있어 바이오헬스융합학과를 신설하게 되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학·생명환경과학부의 입학정원은 10명이 감축되지만 바이오헬스융합학과 신설을 통해 생명과학 및 화학과 관련된 바이오헬스융합학과 입학정원이 40명이 증가하여 자연과학대학 전체로서는 30명의 입학정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 자율혁신계획(안)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입학정원 감축을 권고하여 우리 대학이 입학정원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적정 규모화에 대해 고민하여 학교 전체에 대하여 유기적으로 검토하고, 입학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 차원의 결단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자율혁신계획(안)의 적정규모화와 관련하여 입학정원의 선제적인 조정은 교육부의 시안에 따라 우리 대학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논의해야 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입학정원의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교육부 시안이 고지되어 있으나, 교육부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지금은 입학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 정확하게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입학정원의 조정에 대하여 사전에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는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외부의 요구 없이 선제적으로 입학정원의 조정을 준비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 교육부의 자율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현재는 신입생 충원율이 교육부의 중요한 평가요소로 제시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학생의 중도 탈락률이나 학생 관리 등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신입생 충원 뿐 아니라, 학생 관리에 있어 학생이 무사히 졸업까지 마칠 수 있도록 대학 차원 뿐 아니라, 학과 차원에서 충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 최근에 중도 탈락률을 관리하기 위한 TF를 발족하였다. 신입생 중도 탈락률 뿐 아니라 재학생 중도 탈락률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
- 신설되는 첨단학과를 미래산업을 염두에 두고 설립한 단과대학인 미래산업융합대학 소속으로 정하지 않고 자연과학대학 등 각 단과대학에서 신설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가.
- 현재 우리 대학의 미래산업융합대학은 IT 학과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육부에서 고시한 첨단학과는 IT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첨단학과의 특성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등 다른 단과대학 산하에 첨단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가

능하다.

- 바이오헬스융합학과라고 하면, 타 대학 사례와 같이 AI, 빅데이터, 의료기기 등을 기반으로 생물학이나 유기화학 등을 융합하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학문 분야로 예상되는데, 제시된 교과과정에는 화장품 분야가 두드러진다. 고학년 커리큘럼 역시 첨단분야보다 기존의 화학 및 생명환경 분야의 교과과정을 연장한 수준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 바이오헬스융합학과 교과과정의 성격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첨단학과 분야 중 바이오헬스, 혁신신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첨단학과 분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진행하였다.
- 입학정원의 조정은 언젠가는 직면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첨단학과를 반드시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고 대학에서 이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자율전공학부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학과 신설을 계기로 학과별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첨단학과 신설을 위한 대학 차원 또는 학과 단위의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정원을 소폭 조정하는 등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입학정원 조정 시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학과에서는 다른 학과의 교과과정과 입학정원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신설한 첨단학과는 사전에 계획된 바가 없었으며, 신설된 후에도 대학에서 별다른 비용 등 지원 계획이 없어 학과 양성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향후 첨단학과를 신설할 때에는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는 단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화장품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이다. 타 대학이 반도체,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듯이 화장품 관련 기업과 교과과정, 인재양성 등의 산학연계를 이어 간다면, 신설학과 운영에 따른 재정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 교과과정 개선이나 산학연계와 관련된 부분은 향후 신설학과에 전달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첨단학과로서 학생 유치와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해서 보다 앞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첨단학과의 취지에 부합하는 탄탄한 교과과정으로 구성되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첨단학과 신설 신청(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5. 자문 안건 - 「서울여자대학교 헌장」 개정 요청(안)

경영기획팀장이 「서울여자대학교 헌장」 개정 요청(안)을 설명하다.

- 「서울여자대학교 헌장」 개정 요청(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6. 자문 안건 - 2021학년도 추가경정자금 예산(안)

경영기획팀장이 2021학년도 추가경정자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7. 자문 안건 - 2022학년도 자금 예산(안)

경영기획팀장이 2022학년도 자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우리 대학 재정이 기본적인 필요 경비를 감당하기에도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립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적자로 운영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임은 교내 구성원이 인지하고 있다. 적립금은 한정적이며 유일한 안정적인 수입은 등록금 수입 뿐이고 코로나19로 인해 기부금 수입은 제한적이며 인건비, 장학금 또한 유지하여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항목별 자문보다 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 증대 방안으로는 재정지원사업 수주와 학교법인의 전입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학교법인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 노력, 정책 등이 교내 구성원에게 공유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 지출 비용 최소화, 적립금 전용 등을 통해 주어진 적립금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또한, 2021학년도에 적자의 규모가 상당액 감소하였다. 단, 첨단학과나 국제교류단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의 재정이 확보되어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문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적자의 규모를 축소하여도 적립금의 인출이 계속된다면 재정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 위기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학평의회회 평의원 역

시 교내 구성원에게 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 기타 안건

부의장이 학교법인 정의학원과 관련하여 지난 제2차 대학평의원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논의되었던 학교법인 관련 안건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 의장 명의로 학교법인 정의학원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법인의 10년간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공유하고, 향후 법인의 법정 부담금 확보 계획에 대하여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음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원 노동조합의 확인사항 및 진행 경과를 보고하다.

- 다가오는 2022년 3월 이전에 관련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결과 공개와 더불어 법인 사무국이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과거와 같이 대학과 상호 교류하며,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올바른 행정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학평의원회 명의로 학교법인으로 보내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아직 행정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학교법인이 행정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은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는 시점이므로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등 교내 구성원의 대표자들의 신임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9.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 의장이 2021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10. 차기 회의 일정

-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 4월경 2021학년도 결산 자문을 위해 차기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의장이 17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2년 1월 6일

의 장	김 형 중	(서명) 김형중
부 의 장	조 현 미	(서명) 조현미
평 의 원	박 상 도	(서명) 박상도
평 의 원	민 병 결	(서명) 민병결
평 의 원	이 혜 숙	(서명) 이혜숙
평 의 원	유 황 비	(서명) 유황비
평 의 원	추 시 연	(서명) 추시연
평 의 원	류 수 경	(서명) 류수경
평 의 원	최 형 심	(서명) 최형심
평 의 원	이 귀 우	(서명) 이귀우
평 의 원	백 성 기	(서명) 백성기
평 의 원	김 태 현	(서명) 김태현
간 사	하 성 호	(서명) 하성호